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중개업계, 차스닥 상장 열기 고조

□ 중국의 많은 보험중개회사들이 오는 10월 말 차스닥 개장을 앞두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- 2년 전 대형 보험중개회사인 판화보험서비스그룹(泛华保险服务集团)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된 이후 보험중개업계는 주식시장 진출을 중요한 경영목표 중 하나로 삼아왔으나, 외국 주식시장의 까다로운 상장 조건으로 인해 최근까지 상장한 기업들은 거의 없었음.
- 그러나 10월 말 외국 주식시장에 비해 상장 진입 문턱이 낮고 상장비용도 훨씬 저렴한 중국 차스닥 시장의 정식 개장을 앞두고 업계는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보험중개회사들의 상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음.
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상장에 필요한 일정 조건만 갖추면 보험중개회사들의 주식시장 상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차스닥 개장과 함께 보험중개업계의 상장이 잇달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민타이안(民太安)을 비롯한 중견 보험중개회사들이 조만간 차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, 대부분의 회사들은 상장을 위해 향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·그룹화 할 것으로 분석됨.

- 보험사정업계에서 약 20%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견회사 민타이안은 주식시장 진출을 위해 이미 안신증권(安信证券)을 주간 증권사로 선정하는 등 수년 전 부터 착실히 상장 준비를 해옴.
- 업계에서는 민타이안이 빠르면 올해 말에 보험중개회사들 중 가장 먼저 차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장타이(江泰)와 중후에이(中汇) 역시 내부적으로 상장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구체적인 상장 일자만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한편, 전문가들은 상장을 희망하는 보험중개회사들이 본연 업무인 중개분야 뿐 아니라 손해사정, 계리분야 등을 아우르는 그룹화로 회사 규모를 키워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판화보험서비스그룹의 상장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음.

(제일재경일보, 10/16)